



‘설 명절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 가면 공연 · 전통민속놀이체험이 기다린요’

14일부터 18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우리 고유의 대 명절에 설 연휴기간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비롯한 단막극 등 다양한 공연 및 윷놀이, 널뛰기, 굴렁쇠 등 다양한 전통민속놀이 체험이 펼쳐진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간 매일 2회 공연(오후 1시, 오후 3시)을 길놀이부터 신명나는 사물놀이, 단막극 등 다양한 공연 및 윷놀이, 널뛰기, 굴렁쇠 돌리기 등 전통민속놀이 체험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다음달 초 재개관을 앞두고 지역 주민 등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제공했던 것에 보답하고 설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키려는 본 측은는 비나리, 리듬놀이, 뽕과전, New 관-good(살판, 비나놀이, 죽방울 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고품격 문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삼례문화예술촌은 20여 명의 전문 공연단을 구성해 신명나고 풍성한 설맞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려고 푸드 Zone도 운영할 예정이다.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삼례문화예술촌은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전통민속놀이 체험존을 운영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외국인들에게도 전통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려고 푸드 Zone도 운영할 예정이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이번 설맞이 어울마당 민속놀이 축제는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3월 초 공식 재개관에 앞서 리모델링을 마친 전북 출신의 대표 작가들 작품이 전시된 모모 미술관과 미디어 아트와 VR체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체험관도 임시로 무료로 개방. 전북도 내는 물론 전국의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안=이육수 기자

공연 · 체험이 더 다채로워진다

전주소리문화관 올 업무계획

‘전통연희극 희희낙락’ 브랜드 공연으로 상설화 소리제작소 등 진행 소리나눔교실도 운영

전주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전통소리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전주소리문화관(관장 유현도)이 올해는 공연·체험·교육·전시 등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을 맞는다.

전주소리문화관은 지난해에 시범 운영했던 ‘전통연희극 희희낙락’을 브랜드 공연으로 상설화하는 방침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12일 밝혔다.

입실필봉농악보존회의 ‘전통연희극 희희낙락’은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농악’을 매개로 한 작품. 김

세월 동안 곳곳하게 이어오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악단, 판소리, 사물놀이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소중함을 극의 형식으로 풀어낸다.

오는 4월 21일 올해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공연되며, 관광객 수요가 많은 6~9월에는 토·일요일 주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소리문화관의 상설국악공연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는 판소리를 비롯해 산조, 무용,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을 매주 토요일 오후 만날 수 있다. 체험은 바람개비 피리, 펜턴트, 나만의 소리부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만들기 체험과 소리북·사물 악기 체험으로 구성된 ‘소리제작소’와 ‘도란도란 소리문화 체험’이 진행된다.

교육은 ‘천년 전주 소리나눔교실’을 운영한다. 전주를 찾는 각지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주로 판소리 교실은 유명한 판소리 한 소절을 소리꾼에게 직접 배워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매주 금·토요일 열린다.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악 교실은 판소리·풍물·전통무용·고법 등의 수업을 마련한다.

전시는 한평생 소리꾼 외길로 빛나는 예술혼을 불태웠던 국창 오정숙의 생애와 물품,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국창 오정숙 기념관’과 수궁가·흥보가·심청가·적벽가·춘향가 등 판소리의 다섯 바탕에 대한 정보와 영상 그리고 심청전 완판본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 ‘판소리 다섯바탕전’을 선보인다.

전주소리문화관 관계자는 “전통문화유산의 본향인 전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지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전통연희극 희희낙락을 전주소리문화관, 나아가서는 전주의 대표 상설 브랜드공연으로 자리매김하여 전통문화의 고장 전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우리 문화를 더 신명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클로이 김에겐 적수가 없구나?

스노보드 女 하프파이프 95.50으로 예선 1위 차지 예선 상위 12명 오늘 결선

재미동포 2세 스노보더 클로이 김(18)이 예선 1위로 결선에 올랐다. 12일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을 1위로 통과했다. 국제일학이나 다름없었다. 1차 시기에서 91.50으로 1위에 랭크된 클로이 김은 2차 시기에서 95.50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프파이프 예선에서는 1, 2차 시기 중 높은 점수가 순위에 반영된다. 2위는 1차 시기에서 87.75점을 올린 리우지아유(중국)가 차지했다. 클로이 김은 2위와 점수를 7.75점이나 벌리며 여유있게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 여자 선수 중 처음으로 올림픽 하프파이프에 참가한 권선우(19)는 1차 19.25, 2차 시기 35점으로 24명 가운데 20위에 그쳤

다. 이날 예선 상위 12명은 13일 같은 장소에서 결선을 치른다. 하프파이프는 임몸을 반으로 잘라놓은 모양의 기온 슬로프를 내려오며 점프와 회전 등 공중 연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심판 6명이 높이, 회전, 난이도 등을 따져 점수를 준다. 최고점, 최저점을 뺀 합산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 /뉴시스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리닝 매니저 · 영사 스태프 모집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열리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근무할 스크리닝 매니저와 영사 스태프를 모집한다.

스크리닝 매니저는 상영관 내부에서 상영진행 및 영사 전 영사 테스트 진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영사 스태프는 상영작 영사업무를 맡으며, 영사 사고에 대처한다.

스크리닝 매니저와 영사 스태프는 별도 업무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며,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4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40일간 전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tch@jiff.or.kr)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 /정혜은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15일 ‘설~대보름맞이 전통문화축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대보름맞이 전통문화축전’을 연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세시풍속 및 다채로운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자긍심과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5일에는 활쏘기 체험과 함께 등급별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내가 주몽이다’를, 17일에는 설 전통음식인 떡국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또한 15~16일에는 한복을 입은 관람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50가족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18일엔 떡메치기를 통해 인절미를 나누는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른다.

이어 24일 주말행사로는 가훈과 좌우명을 서예가가 직접 써주는 특별행사와 전통 방식으로 인동초 소쿠리를 제작하기로 유명한 무주 배방마을 장인들과 함께 ‘연과 복조리’를

만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25일은 장수문화예술촌이 함께하는 ‘전통공예품 만들기’를 통해 한지로 탁본하고 천연염색도 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정월대보름(3월 2일)에는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귀밝이술을 나누면서 소원문을 두른 ‘달집태우기’ 행사를 통해 한 해의 액운을 태우고 풍요로움을 기원할 예정이다. 행사는 당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상설체험행사로는 달집태우기에 들어갈 소원문 쓰기와 새해소망부적 찍기, 전통 민속놀이마당, 사물놀이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전통 문화체험의 장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은 지난해부터 월요일에도 개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기휴일인 16일 설날 당일만 휴관한다.

/정혜은 기자

의정부 빙상 3총사, 해설위원 되다

이강석 · 김유림 · 제갈성렬 등

‘빙상의 메카’ 경기도 의정부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어 화제다.

12일 의정부시와 빙상계 등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관계자 3명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위원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KBS에서는 이강석 빙상코치가, MBC에서는 김유림 지도자가, SBS에서는 제갈성렬 빙상감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코치는 중앙초교·의정부중·의정부고, 김 지도자는 경의초교·의정부여중·의정부여고, 제갈 감독은 화계초교, 의정부중, 의정부고, 각각 졸업한 의정부 빙상계 슈퍼스타들이다.

빙상 3총사의 지상파 3사 해설위원 발탁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안종성 의정부시 체육정책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에 대한 많은 응원과 TV 중계 시청을 바란다”면서 빙상 3총사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강석 해설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사랑하는 후배 선수들이 노력한 만큼의 값진 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